



30. 사진작가가 되는 길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현장 탐방 - 사진작가 ▪ 사진작가에 대한 이해 ▪ NCS를 통해서 본 사진작가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직업 전문가를 통한 사진작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 사진작가의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NCS를 통해서 사진작가로서 진로 수업 설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직업현장 탐방>

저는 영화를 비롯한 여러 스냅사진, 개인 작품 활동하고 있는 사진작가 채신영입니다. 사진작가는 사진 기술로 돈도 벌고 그 안에서 자기 작품 활동 하면서 자기 색깔을 표현해 내는 직업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알만 한 거는 영화 스틸 사진인데 제일 먼저 한 게 감시자들, 두 개의 달, 동창생, 찌라시, 관상, 제일 최근에 한 거는 패션왕 그리고 지금은 검은 사제들 후반 VIP 시사나 배우 인터뷰 사진 작업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개인 작품은 사람들에게 좀 위로를 주는 사진을 하고 싶어서 이제 제가 삶의 순간에서 위로 얻었던 순간들 찍고 또 거기에 뭐 캘리그래피까지 덧붙여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진과를 입학해서 이제 정식으로 사진 기술을 배우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뭐 보통 제가 사진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사진과를 구지 나오지 않아도 자기가 카메라 사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진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뭐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술을 해서 그런지 색깔을 보는 눈이나 구도를 보는 게 보통 사진을 시작하는 애들이랑 조금 달라요. 그런 것도 유리한 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일단 체력이 정말 좋아야 되고 길을 가다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떤 곳을 보는 관찰력? 그걸 표현해 내려면 또 사람들에게 그걸 끌어내려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녀석이나 그런 것도 사진작가가 되는데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 됩니다. 네 감각은 무조건 필요하고요. 괴짜가 아니어도 사진작인 사람 많고요. 처음에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고 든 만큼 이제 자기가 사진을 그만큼 인정받고 경력이 생겨야 돈이 나오는 건데 초반에는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제가 사진과 하면서 느낀 게 돈이 많으면 진짜로 하기 편해요. 사진하기. 그때 선생님이 제 장비보고 표정 굳는 것 느꼈어요. 그때 별로 안 좋았거든요. 장비 안 좋아도 좋은 사진 나올 수 있어요. 이번 전시회는 상명대학교 사진과 30주년 기념전이고요. 응축된 시간이라는 주제로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는 전시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관상했을 때 찍은 스틸 사진이고요. 이 장면은 이제 수양대군이 가장 폭력적이고 그 역모를 꾀하고자 하는 감정이 가장 폭발했을 때 그 장면을 제가 사진에 담은 거예요. 이렇

게 찍고 위치나 색감 이런 거 한 번씩 만지고 이제 캘리그래피까지 제가 다 해서 넣어서 이제 사진을 더 풍부하게 만든 작품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동문들과 함께 하는 단체전이지만 다음 번에는 제가 더 멋있는 사진 많이 찍어서 제 개인전을 꼭 하고 싶어요. 많이 돌아다니고, 일단 돈이 없어도 카메라 메고 어디든지 일단 나가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다니는 길이어도 작품으로 한번 찍어보고 뭐든 찍으면 작품이 되니까 그런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노출은 보통으로 맞추기 쉬우니까 구도만 유의하면 괜찮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카메라를 9등분을 하면은 교차점이 가운데 4개가 생겨요. 이 중에 한 군데에다가 혹은 라인에다가 주제를 놓으면 3분할 구도라는 거예요. 네. 저 풍경 진짜 좋아해서 영화 현장에서 찍다가도 예쁜 세트나 그런 거 있으면 찍고 뭐 야외면 나가서도 찍고 그래요. 이 사진을 찍고 어떻게 만지면 더 좋은 사진이 나올까? 어떤 거를 합성해볼까? 어떤 재밌는 사진을 만들어 볼까? 항상 그런 생각하면서 촬영을 해요. 사진작가의 장점은 너무 자유롭고요. 카메라를 들고 나가면 그게 일이 되는 거니까 남들 눈에는 노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는 너무 즐거운데 그게 일이거든요. 자유롭고 너무 행복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 사진을 마음에 들어 할 때가 가장 보람되죠.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 이제 뭐 인터넷으로 배포되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거나 아니면 제가 찍은 사진 딱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어? 나 이거 봤어! 인터넷에서 봤어 이런 식으로도 되게 잘 찍는다, 이런 얘기 해줄 때 가장 보람되요. 힘들었던 순간은 영화 할 때 뭐 체력적으로 많이 딸린다는 것을 느꼈고 영화 현장이 날씨가 시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맞춰야 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자는 거 먹는 거 자유롭지 못한 게 가장 힘들었고. 네 저 체력 증진을 위해서 크로스핏하고 있어요. 배우들한테 디렉션을 주거나 이런 것 보다 그냥 배우들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 배우가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동안 이제 그 사이에 좋은 사진을 많이 담아내는 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표정들 하면은 좀 일일이 체크해 주면서 결국엔 제가 원하는 표정을 나오게 해줘서 좋은 사진을 찍게 해주시는 거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리 짧았던 것 길어지고 피부색이나 화장 뭐 더 고쳐드리고 아니면은 뭐 배경색깔 더 이쁘게 하는 과정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뭐 찍을 때 약간 완성도가 떨어져도 보정하면서 거의 완벽하게 보정을 하면서 사진을 완성 시킵니다. 보정을 잘하려면 많은 사진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진을 적정에 맞춘다고 해서 그게 정답인 사진이 아니라 어떤 사진은 노출이 밝은 게 더 어울릴 수 있고 어두운 게 어울릴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노출이나 이런 거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색감이나 구도도. 초반에는 진짜 조금 줘요. 몇 십만원. 30만원 이렇게 받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 6, 7개월하고 20만원 받은 적도 있어요. 그 열정페이 있잖아요. 사진계에 진짜 많아요. 그 어시나 이런 게 다 열정페이에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영화는 보통 촬영기사 등급이 있대요. 그래서 뭐 가장 낮은 등급 기사들은 안 받고 하거나 한 회차 별로 10만원에서 20만원. 가장 많이 받는 작가님은 한 회차 별로 5-60만원 받는다고 들었어요. 영화 한편이 보통 60~100회차 거든요.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 되요. 사진작가가 만족도 1위래요. 직업 만족도. 그래가지고 저도 스스로 지금 되게 만족하고 있고 부모님도 돈은 들었지만 굉장히 잘 가르쳐줬다. 기술이잖아요. 어딜 가나 써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되게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진과 학생으로 사진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작업할 공간이 없는 거 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이제 젊은 작가들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제공해주고, 그 안에서 서로 피드백 하면서 그 안에서 작품 서로 만들고 그 안에서 전시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사진을 하다 보면 너무 너무 힘들고 좌절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굴하시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기회, 좋은 결과가 생길 거예요. 모두 모두 파이팅!

<한 걸음 더! 꿈Job이 TIP>

NCS를 기반으로 한 직업탐구 포토그래퍼가 되는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포토그래퍼라고 여러분이 워크넷에서 검색하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한글로 쓰셔야 되는데요. 사진 작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촬영 대상을 사진작가는 선정하고 대체로 예술성 있는 작품사진도 촬영하기도 하고 사실 상업성이 있는 작품 사진 촬영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이제 자연에 많이 가다 보니까 바닷가나 산이나 또는 도시나 인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도시나 놀이터나 현장을 답사해서 작품의 소재를 구상하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나 장소를 선정하고 날씨 조도 채도 이런 것들 카메라 조절하고 구도를 잡는 역할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필름 현상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도 사실 아주 작가들은 필름 현상을 여전히 하다 보니까 필름 현상 기술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관은 대체로 사진기를 이용해서 사진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나의 작품으로 이렇게 완성하는 일을 하는데요. 촬영 대상이나 방법이 조금씩 다 다르고 촬영하기 전에 대상물에 어떤 특징이나 거리 구도를 결정한 다음에 카메라의 각도 조명 노출 정도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보통 핸드폰 카메라를 쓰거나 디지털 카메라를 보통 쓰다가 조금 카메라에 관심이 있으면 DSLR로 해서 쓰는데요. 굉장히 사실 이제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웬만한 수준까지는 가서 작가들도 위기감도 느끼니까 더 좋은 작품들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제 작가들도 분류가 조금 달라서 인상을 중심으로 쓰는 인상 사진가가 있고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 사진가가 있고 광고 우리 광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광고 매체를 찍기 위한 광고 사진가가 있고 그런 거 하고 상관없이 순수한 예술을 통해서 하기 위한 순수 사진가가 있고 보도 사진가 우리 신문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 대체로 보도 사진 기자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사진작가들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사진작가들은 프리랜서로 좀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스튜디오에 소속 되서 사진관에 소속 되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대체로 이제 그런 경우조차도 근무시간 제약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진관에 누가 사람들이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 예약을 대체로 이제 잡고 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인 곳이라고 하면 잡지사나 광고사나 신문사에 이제 들어가서 고용 되서 촬영 스케줄에 따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촬영에 일정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대체로 이제 주말이나 휴일이나 이렇게 남들 놀 때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사진작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작가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자격이나 학력이 요구되는 경우 많진 않지만 요즘에는 교육기관에서 사진 관련 학과들이 있고 사설기관에서 사진 강좌들도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사진에 대한 부분을 지식이 있고 사진에 대한 콘테스트 대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좀 관심이 있으면 이런 사진 콘테스트에 입상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도 사진을 잘 찍는 건 아닌데 콘테스트 대회에 2등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니까 사진만 잘 찍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스토리도 중요하다고 우리 학생들한테 알려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한필수 탐험가 인데요. 그 분도 이제 사진을 전 세계에 가시면서 사진을 찍어두시고 그 사진을 가지고 소유하지 않으면 떠날 수

있다는 책을 이렇게 내셨는데 참 좋더라고요. 사진에 이제 글이 짧은 메세지 있는 생각이 있는 메세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성과 흥미로 아무리 사진을 직접 찍는 것을 즐겨야겠죠. 사진 또 의외로 자기가 찍히는 것도 즐기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또 찍히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요. 사진 작품 등을 이제 보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 아무래도 예술적 감각과 좀 풍부한 상상력 창의력 이런 부분들이 유용하고요. 그리고 또 카메라 조작에 좀 능숙하고 필름 현상이나 또 잘하시는 분들 자기가 현상 편집 인화가 잘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기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카메라 장비 한번 보셨습니까? 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서 여성분들이 저렇게 남자분이 아니라 여성분이 그렇게 무거운 걸 가지고 다닌 걸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2-30키로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관하고 확장을 할 수 있는 직업으로 보면 대체로 사진도 굉장히 광범위해서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분야 뿐만 아니라 편집하는 일 인화하는 일, 저작물 관련 저작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진 장비한 거. 그리고 이런 저작물도 이제 인터넷으로 판매도 하고요. 그래서 상업성으로 이제 포토그래퍼도 있고 사진관을 직접적으로 직접 운영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진 편집, 웹디자인, 여행, 오지탐험, 블로그, 촬영기사 심지어 본인이 모델 되기도 하고 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화가가 실제로 제가 이제 기억나는 분 중에 하나가 프랑스에 앙리 까르띠에부르송 아 이름 어렵죠. 제가 제대로 말했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앙리 까르띠에부르송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화가 였다고 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두고 구도를 이해하는 연습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림을 그만두고 나중에 이제 사진작가로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 있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도 서로 같이 직업을 확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진작가가 되기 위한 NCS 분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작가는 대 분류에 보면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에 속하고요. 중분류에 보면 문화 예술이 있습니다. 소분류에 들어가시면 실용 예술이 있고 세 분류에 이제 실용 사진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NCS에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 분야 별 검색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직업 하나 하나 보도록 하면 좋겠죠. 그래서 중분류, 소분류, 세 분류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환경을 분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실용 사진이 어떻게 있는지 상업용 사진하고 인물 사진하고 사진 촬영하고 이게 이제 2012년 기준에 이제 1800명 가량이 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직무 수준으로 보면 뭐 3수준에서부터 최고 관리 감독하는 총괄까지 가면 7수준까지 아주 올라간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NCS에 이제 사진작가 되기 위한 NCS의 능력 단위로 바라본다 하면 아무래도 사진을 어떤 사진을 찍을 것인가에 대한 기획을 해야 될 거 같고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제작 계획에서부터 사진 장비 관리 장비를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부분들 또 조명도 상당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영화 이렇게 찍기 위해서 조명하듯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조명이 탁 짧은 순간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명 도구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 현상하고 인화하고 사진에 어떤 제작평가 제작 저작물 관리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진 기획이라고 하면 프로젝트를 이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그걸 파악하고 제안하고 예산을 협의하고 그 전략을 수립하는 모든 능력을 사진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프로젝트를 수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방향 목적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를 또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한 요건을 분석해야 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필요한

지식으로 본다 라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해석하고 요구 조건을 갖춰야겠죠. 우리가 결혼 이라든지 그죠. 돌이 라든지 가정 내에서도 그렇게 할 때 고객과의 이제 포토그래퍼는 제안하고 해석하고 가격도 협의 해야겠죠. 그런 이제 기술로 필요하다고 그것을 분석을 하고 문서화 하고 과거에 사진들도 이제 보여줘야 될 거고 의뢰인하고도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어떤 걸 요구 하는지 그런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태도로도 프로젝트에 어떤 실행을 통해 좀 능동적 이여야 되거든요. 아이들하고 대하는데 어른들하고 대하는데도 아이들도 안 울고도 즐겁게 해야 될 거고 어른들도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은 사진작가는 굉장히 유쾌한 유머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뢰인과 그러기 위해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이고요 밝은 태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사진이 창의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학습 모듈은 개발되진 않았는데요. 직무기술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바라보다 보면 어떤 직무를 가지고 해야 될지를 보시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분석을 하고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예산을 꾸며보고 그래서 학생들하고도 직접 어떤 사진을 한번 촬영해보자 이렇게 모두 학습을 하셔도 좋을 거 같고 만약 저 같다 라면 주말이나 소풍이나 이럴 때 우리 학생들이 사진기를 가져오도록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 폰 경우에도 촬영해도 좋을 거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학생들하고 어떤 사진에 대한 프로젝트하고 그것을 구상하고 제안하고 직접적으로 한번 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과 그렇게 같이 출사 나가셔서 멋지게 사진 찍어 보면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진이 우리 인간이 가장 예술에 접하지 쉬운 예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술 하면 대부분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고 만들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 재능이 없는 사람 그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어렵는데요. 사진은 아주 고도로 물론 잘 찍는 거는 적절한 재능과 훈련들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인들도 가장 쉽게 예술에 접하는 게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사진도 힐링하는 효과들도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사진 많이 찍어 보시고 우리 학생들하고 멋진 출사를 한번 꿈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